

海外情報

保險問題에 先進國難色으로 未結論
 모든問題解決엔 相當한 時間걸릴듯
 VNIDO의 第2回肥料會議 10日에 閉幕

AUSTRIA 의 Innsbruck에서 開催된 VNIDO (國聯工業開發機構) 의 第2回肥料本會議가 10日 閉幕되어 同會議에 參加했던 白善燁 綜合化學社長을 비롯한 우리나라 代表一行이 지난 18日 歸國했다.

이번 會議에서는 途上國이 肥料 plant 를 建設할 경우의 先進國과 의 契約上의 問題라든가 plant稼動後에 생긴 故障을 둘러싼 保險問題가 核心議題였는데 參加者가 伝하는바에 依하면 會議內容은 途上國側의 要望에 先進國側은 難色을 表示하여 結局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事務局이 앞으로 保險회사나 各國政府와 協議해 나가기로 했다 한다.

途上國側의 要望은 從來의 契約에 一定한 短期間以後에 發生한 plant故障에 대해 이것을 保應하는 保險이 必要하다고 強調한데 對해 西方側 先進國과 소련側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據絶함으로 結局 事務局이 이를 整理해 나가기로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保險問題를 包含한 바람직한 plant建設契約方法에 대해서도 事務局이 앞으로 各國과 協議하여 解決해 나가기로 되었다는데 事務局에서는 1980年까지의 可能한限 빠른時期에 次回會合 (肥料 Consulta-

tion Meeting) 을 열어 同問題를 整理할 생각이라고 한다.

途上국 메로의 肥料工場移轉을 目標로한 同會議는 1~2회의 會
합을 通하여 途上국側의 “인푸다” 整備問題라든가 이번의 plant 建
設을 둘러싼 契約上의 問題등 많은 問題를 協議하여 왔으나 途上
국메로의 肥料工場移轉이 順調롭게 進行될 Vision이 되기까지에는
아직 相當한 時間이 걸릴것으로 보여지고있다.

陞州등에서 加里數 10萬屯 以上
印度에서 明年3月까지 導入

最近의 非公式情報에 依하면 印度 MMTC 는 陞州나 Canada 도부터
加里鹽 數10萬屯以上 購買기로 決定했다한다. 詳細한 內容은 밝혀
지지않고 있으나 同情報에 依하면 東獨에서 35萬屯, 西獨에서 10
萬屯. plusa, Canada (Canpotex) 에서 27萬屯을 導入기로 했다
한다. 價格은 大勢 FOB \$ 65 前後 船積도 今年10月부터 明年3月
까지로 되어있다한다.